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S&P 보고서: 미 경기 사이클 지표: 긴축통화정책과 글로벌 경기둔화로 제약 받아
- 모건 스탠리 미 에쿼티 전략: AlphaWise 39차 미 소비자 행태 조사
- NYT: 이번 수요일 미 금리 0.25% 인상... 그 다음은?
- WSJ: 올해 연준 금리 전략은 금리 인상이 경제둔화에 얼마나 빨리 여파를 줄지에 달려 있다
- WSJ: 미 12월 실업률 반세기 만에 최저치...주마다 정도는 천차만별

[미국 금융]

- Bloomberg: 모건 스탠리, "미 주식 최근 랠리 조심하라"
- Bloomberg: 유가 하락세...투자가들 금리 인상에 촉각

[반도체]

- WSJ: 메모리 칩 업체들, 장기적인 가격 슬럼프 직면

[글로벌 경제]

- The Economist: 글로벌 인플레이 문제 둔화 중... 침체 가능성도

[한국 경제지 기사들]

- 한경: 래리 서머스 "美 경제 여전히 불확실...금리인상 중단해야"
- 한경: "2025년까지 6000명 감축"...필립스도 '감원 칼바람'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도요타, 새 CEO와 EV 전략 재검토한다
- CNN Business: 현대·기아차 가입 거부하는 보험 회사들...도난 위험 높은 탓
- Bloomberg: EV 성공 비결은 소프트웨어...자체 SW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 CNBC: 월마트, 의류 판매 늘리려 매장 리모델링

[보고서]

-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보고서: 2022년 4/4분기 미국 GDP 성장률(속보)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S&P 보고서: U.S. Business Cycle Barometer: Constrained By Tight Monetary Policy And Global Slowdown.

미 경기 사이클 지표: 긴축통화정책과 글로벌 경기둔화 때문에 제약받아

- 주요 수익률 스프레드는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 위험에 대한 S&P의 정량적 평가가 따르면 10년/3개월 스프레드를 사용할 때 경기 침체 확률을 59%로 보인다.

-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곧 중립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심리를 면밀히 살펴보면 1월 예상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높았는데, 이는 주로 낮은 휘발유 가격 때문이었다.
- 은행들은 전반적으로 대출 기준을 계속 까다롭게 하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대출자들의 부채 상환 능력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S&P 보고서 원문

모건 스탠리 미 에쿼티 전략: AlphaWise US Consumer Pulse Survey Wave 39

AlphaWise 39차 미 소비자 행태 조사

모건 스탠리가 지난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에서 약 2천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의 행태 및 전망을 측정했다.

1.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테크 업계의 연이은 해고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감소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응답자 중 31%)
2. 소비자의 3분의 1 이상이 팬데믹 이전보다 저축 규모가 줄었다.(39%) 나머지 33%는 과거와 비슷한 저축 규모, 그리고 나머지 28%는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 소비자의 3분의 1 이 향후 3개월간 큰 지출(여행, 대형가전, 차량 구매 등)을 미루고 있다.(34%)
4. 소비자들이 자국 경제 전망을 낙관하는 국가는 중국뿐이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 원문

NYT: Smaller Rate Increase by Federal Reserve Likely as Inflation Cools 이번 수 수요일 미 금리 0.25% 인상... 그 다음은?

- 연준이 금리 인상 폭을 계속 낮추는 상황에서 이번 주 수요일 인상 폭은 0.25%. 이럴 경우 총 금리는 4.75%.
- 이날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인플레가 낮아질 것인가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연준이 갈 길이 많다고 할지 관심거리다. 연준은 지난 12월에 2023년 금리를 5% 이상으로 하고 이를 일 년 내내 유지하겠다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이는 최근 발표되는 일련의 데이터에 달렸다.
- T.D. Securities의 금리 전략가인 Gennadiy Goldberg는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연준 관리들은 아직 '임무 달성'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시장은 인플레가 끝났다는 신호로 과

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것은 연준이 보내려는 메시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 일부 전문가들은 인상을 멈출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도 경제 전망이나 금융 상황의 변화가 필요할 경우 유연하게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NYT 기사

WSJ: Fed's Interest-Rate Strategy in 2023 Hinges on How Quickly Rate Increases Slow Economy

올해 연준 금리 전략은 금리 인상이 경제둔화에 얼마나 빨리 여파를 줄지에 달려 있다

- 바꿔말해 금리 인상 움직임을 완만하게 할 경우 연준은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를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 수요일부터 연준 관리들의 핵심 논의 내용은 그들의 이전 금리 인상들이 미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둔화시킬지, 이른바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정책의 길고 가변적인 시차 상황’을 판단할 것이다.
- 시차가 길면 작년의 금리 인상이 이제 막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내년에는 경제 활동이 강력하게 억제될 것이다. 이는 연준이 금리를 훨씬 더 인상하거나 매우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 반면에 시차가 더 짧다면 이전의 인상이 이미 대부분 효력을 발휘했으며, 연준이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를 더 높이거나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실제로 이번에는 연준의 움직임을 경제를 통해 느끼려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WSJ 기사

WSJ: The Jobless Rate Is at a Half-Century Low. In These States, It's Even Lower.

미 12월 실업률 반세기 만에 최저치...주마다 정도는 천차만별

- 미국의 노동 시장은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크게 개선되며 모든 주에서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그 속도는 주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보인다.
-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국가 실업률은 12월 3.5%로 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Utah 주가 전국 최저인 2.2%였다. North Dakota와 South Dakota가 2.3%로 뒤를 이었다. 실업률이 5%를 넘긴 채로 2022년을 시작한 New Jersey와 Pennsylvania의 실업률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 12월 미 전역의 고용은 3% 증가했고, Texas가 5%, Florida가 4.8% 늘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추가했다.
- California, Oregon, Washington 등 특히 미 서부 주들의 실업률은 최근 몇 달 동안 꾸준히 상승해 주택시장과 노동시장 둔화 징후가 눈에 띄고 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Morgan Stanley Says Don't Buy the Rally as Fed Looms **모건 스탠리, “미 주식 최근 랠리 조심하라”**

- “최근 주식 랠리에 모여드는 투자자들은 연준을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망하게 될 것이다”
- 모건스탠리의 Michael Wilson의 팀은 메모에서 “최근의 주식 반등은 1월의 계절적인 효과와 지난 12월과 작년에 힘들었던 상황 이후의 쇼트커버링(short covering) 현상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 실제로 수입은 예상보다 나쁘고 특히 마진 전선에서 그러하다고 그들은 말했다. 또한 “두 번째로, 투자자들은 'Fed와 싸우지 말라'는 기본 규칙을 잊은 것 같다. 아마도 이번 주에는 이를 상기시키는 날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Oil Extends Drop as Commodities Ease, Investors Eye Rate Hike

유가 하락세...투자가들 금리 인상에 촉각

- 오늘 월요일 유가는 중국의 설 연휴 복귀로 기대했던 상승세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광범위한 원자재 시장과 함께 다시 하락했다.
- 서부 중질유는 지난주에 81%를 상회했으나 79불로 떨어지고 있다. 위험 회피 심리가 시장에 스며들고 있는데 이번 주에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이 시작되면서 유럽 주식과 미 주식 선물도 하락하고 있다.
- 원유는 최근 중국의 수요 전망에 힘입어 가격이 지지를 받았지만 미국이나 유로존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 중국에서 소비가 개선되고 있다는 몇 가지 신호가 있다. SINOPEC에 따르면 음력설 연휴 기간 휘발유 판매가 20% 증가했다고 밝혔고, 중국 문화관광부는 연휴 기간 동안 3억 건 이상의 여행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블룸버그의 8개 초기 지표 종합 지수는 1월에 거의 개선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Bloomberg 기사

[반도체]

WSJ: Memory Chip Makers Face a Prolonged Price Slump**메모리 칩 업체들, 장기적인 가격 슬럼프 직면**

- 작년에 급격히 떨어진 메모리 칩 가격은 올해 상반기에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관련 투자와 일자리 축소를 보였던 이 업계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 업계 분석가들은 스마트폰에서 개인용 컴퓨터, TV에 이르기까지 일상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의 메모리 칩의 평균 가격이 이번 분기에 두 자릿수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한다. 애널리스트 데이터에 따르면 이 같은 예상은 2022년 마지막 3개월 동안 가격이 전 분기 가격 대비 20% 이상 하락한 이후 나온 것이다.
- 메모리 칩은 대부분 상품화되고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선두 주자로 간주된다.
-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삼성 반도체 사업부의 10~12월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한 약 1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도 낸드플래시 적자 폭이 컸기 때문에 올해 1분기부터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The Economist: The world economy's inflation problem is easing**글로벌 인플레이션 문제 둔화 중... 침체 가능성도**

- 3년 팬데믹 침체 후에 현재는 밝은 세계 경제 이유들이 생기고 있다. 미국에선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경기 침체 없는 가격 통제, 즉 소프트랜딩 희망이 보인다. 유럽도 따뜻한 겨울로 에너지 가격이 내려갔고,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의 탈피로 반등이 기대된다. 시장도 좋아 S&P는 금년들어 5% 상승했다. 심지어 유럽과 이머징 마켓은 그보다 더 상승하고 있다.
- 그러나 속단은 금물. 미 물가 하락하지만, GDP는 둔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도 떨어지고 있다. 노동 시장은 좋지만 이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낙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 미 근로자의 생산성은 연간 약 1%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임금 상승은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훨씬 초과하는 물가 상승을 예고한다. 임금 상승이 식을 때까지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

-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직면하면 유럽도 함께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를 의미하므로 수입 인플레이션을 높여 ECB 입장에선 힘든 상황이 되고 신흥 시장 랠리가 약화될 것이다.
- 중국의 반등으로 가스 등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
- 세계 경제는 과열된 노동 시장과 에너지 위기라는 두가지 적을 극복해야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The Economist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한경: 래리 서머스 "美 경제 여전히 불확실...금리인상 중단해야"
- 한경: "2025년까지 6000명 감축"...필립스도 '감원 칼바람'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Toyota Rethinks EV Strategy With New CEO 도요타, 새 CEO와 EV 전략 재검토한다

- 오랫동안 EV에만 집중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하이브리드 등 점진적인 개발에 더 집중하는 전략을 보였던 도요타가 새 CEO의 취임과 함께 EV 전략에 변화를 꾀하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 미국의 EV 세액 공제가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고, 유럽은 2035년까지 배기가스 제로 신차 판매를 의무화했으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신차 판매 20%가 이미 전기차인 만큼 도요타도 13년 만에 EV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 한편 도요타는 2022년 11월까지 전 세계 하이브리드 출하량의 30%를 차지하며 판매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순수 전기 자동차의 판매량은 여전히 미미하다. 작년 미국 EV 시장에서 도요타의 EV SUV bZ4X는 판매 10위에도 들지 못한 바 있다.

WSJ 기사

CNN Business: Some auto insurers are refusing to cover certain Hyundai and Kia models 현대·기아차 가입 거부하는 보험 회사들...도난 위험 높은 탓

- 미국 최대의 자동차 보험사 중 하나인 Progressive와 State Farm에서 일부 2015~2019년형 현대·기아차 모델에 대한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 HLDI에 따르면 2015~2019년형 현대·기아차 모델은 비슷한 시기 생산된 다른 차량보다 도난을 당할 가능성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

다. 차량과 키가 실제로 맞는지 확인하는 electronic immobilizer를 장착한 차량이 26%뿐인 탓이다.

- 이에 자동차 도둑들이 도난 방법을 SNS에 공유하는 등 현대·기아차의 도난 청구액이 30배 이상 급증했다. 현대·기아는 각각 차량용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 배포 중이며 운전대 잠금장치나 보안 키트도 제공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The Secret to EV Success Is the Software **EV 성공 비결은 소프트웨어...자체 SW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 오랜 시간 동안 자동차 기업들은 powertrain, 즉 엔진과 변속기를 자동차의 핵심 기술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EV 시대가 도래하면서 powertrain은 더 이상 자동차 간의 차별화 요소가 되지 못하게 되었다. BMW EV와 캐딜락 EV의 운전 경험이 거의 비슷하게 된 것이다.
- 대신 EV의 차별화 요소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통한 “사용자 경험”이라는 것이 테슬라에 의해 새롭게 정의되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도 SW의 중요성에 눈을 뜨고 있다.
- 자동차 업계는 다른 업체에 소프트웨어를 맡기는 대신 자체 개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폭스바겐은 지난 2년간 6천6백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고용했다. 자료에 따르면 SW기반 자동차 매출이 2030년까지 7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며, 자동차 업계 전체 매출의 약 25%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CNBC: Bright lights and snazzy mannequins: Walmart rolls out sleek new store designs

월마트, 의류 판매 늘리려 매장 리모델링

- 월마트가 일부 매장에 더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 마네킹과 진열대 디자인을 바꾸는 등 리모델링을 통한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실제로 소비자 방문 횟수와 쇼핑 시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는 식료품보다 더 높은 이윤을 내는 의류, 화장품 등의 임의재 품목으로 소비자들을 더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다. 이에 더해 다른 브랜드와의 협력을 넓히고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는 등의 시도도 넓혀가고 있다.
- 한편 월마트는 이번 회계 연도에 매출은 더 늘었지만 임의재 소비가 줄고 식료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수익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CNBC 기사

[보고서]**한국은행 뉴욕사무소 보고서: 2022년 4/4분기 미국 GDP 성장률**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한국은행 보고서 원문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美 인플레이 둔화에 '기준금리 인상 3월이 마지막' 전망 확산**

미국이 이번 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한 번 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3월이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지막 인상이 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다음 달 1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진행한 뒤 금리 인상 폭을 발표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상황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의 급등세가 한풀 꺾인 데 주시하고 있다.

27일 발표된 지난달 PCE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 올라 상승폭이 전월(5.5%)보다 낮아지면서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kocham.org)[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